

現代圖書分類表 概要 (二)

任 鍾 淳

第二 展開分類法 (Cutters

Expansive Classification)

이) 分類法은 Charles Ammi Cutter(1837—1903)에 依해서 Boston Atheneum 圖書館의 20餘萬冊의 圖書에 對해서 研究한 實際의 成果로서 1879年에 그一部를 發表하고 그 大要가 出版되었다. 다음 10年間 그 分類表의 組織은 修正와 發展을 하여 1891年에 著者에 依해서 Expansive Classification으로서 出版되었다. 即 1891年에 이르러 第一表가 發行되고 그後 第二表 第三表로 계속하여 第六表까지 發行되었으나 第七表에 이르러서는 그 全部의 完結을 보지 못하고 不歸의 容이 뒀다.

이) Cutter's 展開分類法은 D. D. C. 와 並稱되는 圖書分類法의 하나이니 美國國會圖書館分類法의 基礎가 된것이다. Cutter가 이) 分類法을 만드렸을 动機는 D. D. C. 의 順序 及 區分의 缺點을 認定하고 또 大小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圖書館에適合하지 않는다고 하여 E. C. 를 發表한 것이다.

Cutter의 展開分類法은 Richardson도 現代의 書誌學의 分類法中 第一 論理의이니 學究의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한가지 缺點은 그리 널리 世界에 普及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좀더 具體的으로 說明을 하니 이 分類法은 既成의 分類法中 第一 論理의인 것으로서 識者間に 承認되고 있다. 이것은 작게는 한개의 書架에 配列할 수 있는 만큼의 小集書에서 크게는 千萬

冊으로 增大하여도 記號의 展開는 조금도 困難함이 없이 擴大하여 가는 可能性을 具備하고 있는 것이다.

第一表에서 第七表까지의 概要要 살펴 보면 1891年에 發表된 第一表는 小圖書館用이며 8區分이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 記號는 文字로 區別 되었다. 第一表에서는 文字 하나씩만을 가지고 있으나例外로 小說에 있어서만 두개를 가지고 있다. 即 Y_F와 같이 記號를 두개 가지고 있는 것이다.

第二表에서는 歷史와 地誌下에 F30, F39, F45, F47, F60, F67, F70, F80, F83, 과 같이 四大陸用으로 四個의 番號와 重要한 國家用으로 五個의 番號를 助記로 採用했다.

第三者에는 알파벳 文字中 P字以外의 25個의 文字를 全部 使用했으며 B部分의 哲學에서 宗敎를 따로 B_R로 分類하였다.

第四表에서는 重要한 外國의 言語와 文學을 爲하여 6페이지에 達하는 部分을 展開했다.

第五表에는 22페이지에 達했으며 더 組織의이고 그리고 세가지 要素와 어느 때는 네가지의 약간의 記號를 가졌다. 例를 들면 Cbbd는 Bible dictionary이고 Y39_F는 佛蘭西小說인 것이다. 이 第五表에서부터는 A에서 Z까지 全部를 適用하였다.

第六表는 51페이지로 展開되었으며 約千餘의 細分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全表의 展開는 完成되었다. 그러나 그後 다시 精密함에 이르는 第七表가 部分的으로 發表되었으나 最後의 工藝及 工學部와 第七表全部에 對한 件名索引의 完成을 기다리지 못하고 1903年에 Cutter는 別世했다.

이 分類法은 爲先 모든 主題의 配列이 唯學的이고 理論의이다. 即 嚴密한 歷史의 進化論의 立場에서 모든 事項을 粗에서 精密에 가장 自然의으로 分類 配列하고 있다. 이것은 最初의 八個의 類의 配列順序에 依해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人間生活의 進化의 歷史觀을 表現한 것이다. 即 A의一般的著作은 宇宙의 諸元素를 包括하므로서 定形敘고, 空虛한 混沌을 代表하는 것으로 假定하였으며 第一 먼저 萬物의 靈長인 人間의 存在를 假定했다. 사람이 存在한다는 意識이된 原始人으로 부터 거기서 發達한 精神을 懷抱하는 哲學은 B哲學에 總網羅된다. 이 哲學을 通해서 神의 存在에 부닥치고 神을 禮拜하며 이것은 B_R—C(宗教)에 그리고 사람은 그個人으로서의 生活(傳記) 다음에는 必然의으로 그 生活하고 있는 場所(地誌)등 또는 歷史를 가진 D—G를 가졌으며 그 場所의 範圍內에 있어서는 社會生活이 營爲되어 그들과의 關係가 政治 法律 其他의 社會의 機構와 秩序가 생기게 되며 이것은 H—K(社會科學)에 둔다. 經濟的 基礎가 確立되면 그後 그들은 이 注意를 存在를 支配하는 技術(R—U應用技術)에 들렸다. 그리고서 自己를 發見하고 自己의 物理의 存在에 準備 感覺保存의 美術과 文學等이 盛하게 되며 國民의 發達의 最高潮에 達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分類法의 副區分에 있어서도 같은

進化的順序가 主張되고 있으며 또 그 存在가 發見될 것이다. 展開分類法은 全體를 通해서 進化의 觀念에 따라서 配列되어 있다. 即 經濟는 自然의順序—人口(H_D) 生產(H_E) 交換(H_{Iz}) 分配(H_Z) 財產의 消費(H_Z)—에 따랐으며 科學은 分子論에서 質量論으로 數와 空間에서 物質과 힘의 過程을 經過하여 物質과 生活에 이르렀다. 博物學에 있어서는 各主題의 各部分을 博物學의 指示하는 곳에 發生的順序에 따라서 配列되었다.

植物學은 隱花植物에서 顯花植物로 動物學은 原生動物에서 靈長類를 지나 人類學으로 끝났다. 美術은 立體美術—造園, 建築, 彫刻, 鑄造—와 平面美術—繪畫, 印畫, 其他—와 混合美術 即 群少裝飾美術과 手工藝美術로 類別되어 있다. 圖書學은 그 生產(著作業, 著作, 印刷及 裝幀)에서 分配(發行及 販賣)를 거쳐 公立, 私立의 圖書館이나 文庫에 있어서의 所藏과 利用奉仕를 하며 그의 記述 即 書誌(이것은 一般, 國別, 主題及 選擇)라는 方法으로 適當히 區別되어 있다)로 끝이는 圖書의 歷史로 막을 닫았다.

이 展開法의 特色은 그 自由로운 記號法에 依해 展開가 自在한 것에 있다. 또 文字와 數字의 併用이므로 簡單하고 그리고 事物과의 關係나 또 하나의 事物과 이 것에 從屬하는 事物과의 連絡도 明瞭하다. 即 記號의 基礎를 英文의 알파벳에 두고 事物의 分類에는 그 使用에 依해 各已 26個의 展開를 할 수 있으며 또 必要에 따라서 數字를 附屬 併用하는 地理學의 區別도 企圖되어 있으며, 이것은 10個式의 數字에 制限되어 있는 十進法과

比較하여 보면 꽤 自由로 하 또 豐富히 事項을 包容하고 分類할 수 있다. 또한 이 展開法의 特色은 圖書館의 規模에 따라 또 藏書의 多少에 따라서 각各 계일 適當하다고 하는 七種의 分類 基準을 나타낸 것이다. 為先 極少의 集書에 對해서 8類에 나누는 것으로 出發하여 第一表에 있어서는 最少의 圖書館으로 8類로 第二表에서 좀 더 큰 圖書館으로서 15類(附 地理別 16) 第三表에 있어서는 27類(附 地理別 29)에 차츰 細分하여 項目을 增加하고 第七表에 이르면 계일 精密을 極하여 約 一萬의 事項에 達하여 어찌한 큰 圖書館이라도 算수 있게 되었다.

展開分類法의 組織은 아래와 같으다.

I. 第一分類表

- A. 參考及 各類를 包含하는 一般性質의 圖書.
- B. 哲學及 宗教.
- E. 歷史科學(傳記, 歷史, 地誌及 紀行)
- H. 社會科學(統計, 經濟學, 商業, 慈善, 教育, 平和, 禁酒, 婦人, 政治學, 政治, 刑法, 法制等)
- L. 諸科學及 諸技術(有用技術 及 美術)
- X. 語學
- Y. 文學(文學史, 書誌學及 圖書 技術包含)
- YF. 小說

II. 第二分類表

- A. 參考書等
- B. 哲學及 宗教
- E. 傳記
- F. 歷史
- F30. 歐羅巴史
- F39. 佛蘭西史
- F45. 英國史

F47. 獨逸史

F60. 亞細亞史

F67. 日本史

F70. 阿弗利加史

F80. 아메리카史

F83. 美國史

G. 地誌及 紀行(地方表의 數字에 依해 서 下와 같이 細分한다)

H. 社會科學

L. 自然科學(科學總類, 數學, 物理學, 天文學)

M. 博物學(顯微鏡學, 領質學, 地文學, 氣象學, 古生物學, 生物學, 植物學, 動物學, 人類學及 人種學)

Q. 醫學

R. 有用技術

V. 運動, 遊戲, 音樂, 演劇.

W. 美術(美學, 造園, 建築, 彫刻, 鑄造, 烹業, 繪畫, 版畫, 寫眞術, 裝飾技術, 裁縫, 家具等)

X. 語學

Y. 文學

YF. 小說

III. 第三表에서 第六表

- A. 一般著作
- B. 哲學
- BR. 宗教學及 諸宗教(基督教及 猶太教除外)
- C. 基督教及 猶太教史
- D. 教會史
- E. F. G. 第二表外 同
- H. 社會科學
- I. 社會學
- J. 政府, 政治
- K. 立法, 法律, 婦人, 諸協會
- L. 科學一般
- M. 博物學一般, 顯微鏡, 地質學, 生物

- 學
 N. 植物學
 O. 動物學
 Q. 醫學
 R. 有用技術
 S. 工學及建築
 T. 製造及手工業
 U. 國防諸技術
 V. 運動 演劇 音樂
 W. 美術
 X. 語學
 Y. 文學
 Y_F. 小說
 Z. 圖書技術

IV. 第七表

Z	圖書技術
Z_A—Z_K	製作
Z_A—Z_C	著述業
Z_D—Z_G	著述
Z_H—Z_J	印刷
Z_K	製本
Z_L—Z_M	分配
Z_L	出版 叉 販賣
Z_M	保管 叉 利用
Z_N—Z_S	圖書館
Z_N	私立 圖書館
Z_P—Z_S	公共 圖書館
Z_T—Z_Z	記述
Z_T—Z_V	一般書誌
Z_W	主題書誌
Z_X	圖書 選擇
Z_Y	圖書館史
Z_Z	國家書誌
Z_P	<u>公共圖書館</u>
Z_R	一般
Z_P 11—99 또는 Z_PA—Z_PZ	公共圖書館史 叉 記錄
Z_P12 또는 Z_PA	各級圖書館

- Z_QB—Z_QD 基礎外 維持(保護, 規則, 方法)
 Z_QF—Z_T 行政
 Z_QF 建物
 Z_QG—Z_T 管理

以上과 같이 Cutter의 展開分類法은 組織되어 있다. 上記中에서 第七表는 表中에서 Z項만 拔萃했으며 또한 그 中에서도 公共圖書館만 細區分으로 여기에 表示한 것이다.

(1) 形式區分

이 展開分類法에는 形式區分이 있다. 之을 第六表에는

- D. 辭典
- E. 百科事彙
- I. 索引
- M. 博物館
- P. 定期刊行物
- Q. 拔萃
- R. 參考書
- S. 協會로 되어 있었으나 이들의 文字와 主題 細目間에 있는 記號가 混亂될 虧慮가 있으므로 第七表에 있어서는 文字로 된 記號를 數字의 記號로 變更 하였으며 그리고 形式區分의 配列 順序도 아래와 같이 變更됐다.

1. 理論, 哲學
2. 書目
3. 傳記
4. 歷史
5. 辭典, 百科事彙
6. 年鑑, 住所錄
7. 定期刊行物
8. 協會
9. 簿書, 全集, 으로서 이것의 例를 들면 Z_N은 私立圖書館으로서 Z_N.7는 私立

圖書館 雜誌이다. 여기서 形式區分과 主題記號를 庫別하는 點(符號)이 使用되고 있으며 이는 分類하기 為한 考案으로서 小數點은 아닌 것이다.

(2) 地理區分

形式區分 나음에 地理區分番號가 붙은 다. (여기서 引用한것은 拔萃한것이다)

11. 世界
12. 航海記及旅行記集
13. 世界一周航海
133. 热帶
135. 温帶
14. 北極及南極地方
14. 北極地方
143. 그린란드
144. 歐羅巴北極地方
149. 南極地方
15. 太洋及島嶼
151. 아프리카及아메리카
152. 아메리카及아세아
16. 太平洋及島嶼
161. 하와이 제도
17. 폴리네시아
18. 마이크로네시아
19. 멜라네시아
20. 파푸아(뉴기니아)
21. 오스트랄리아
211. 서부 오스트랄리아
212. 북부 오스트랄리아
213. 아메리칸드리섬
214. 남부 오스트랄리아
215. 퀸즈랜드
22. 타スマ니아
23. 뉴질랜드
24. 아세아及아프리카
25. 아세아及구라파
26. 구라파及아메리카
27. 구라파及아프리카

28. 구라파及아프리카及아세아
29. 토이기
30. 구라파
32. 희랍
35. 이태리
39. 불란서
45. 영국
47. 독일
60. 아세아
66. 중화민국
67. 일본
70. 아프리카
80. 아메리카
81. 북아메리카
83. 미국
- 84-94 미국 각주별
98. 남아메리카
99. 부라질

이 展開分類法에 있어서 主題를 文字로 表示한데 反하여 數字로서 地理的 圖分을 表示한 것이다. 이것은 上示한바와 같이 11에서 99까지 數字로서 十進細分式인 地理學의 圖劃을 配當한 것이다.

例. KW45는 英國의 婦人

YF83은 미국의 小說

K35는 伊太利法이 된다.

最通 우리가 알고 있는거와 같이 記號의 長短은 主綱類의 多少에 依存하고 主綱數가 많은 分類表는 작은 分類法 보다도 그 記號가 짧으나.

이 展開分類法은一般的으로 Dewey의 그것보나 짧으다고 한다. 即 이것은 알파벳을 基礎로하면 26의 主綱을 얻게되고 그속에 一個의 文字를 다시 알파벳順으로 圖別한다. 이것을 數學的으로 나타내면 Dewey의 10×10 보다 26×26 의 記號를 얻게된다. 이리하여 Dewey의 1-00의 각각에 一階級을 添加하면 100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Cutter의 文字에 1文字를 添加하면 (26×26) 676의 자리를 얻게된다.

그으로 이 展開分類法의 長短點을 들어 보면 아래와 같으다.

長點

1. 明確하다.
2. 論理의이다.
3. 用法 名辭 配列 共히 近代의이다.
4. 圖書館의 實際에 立脚하여 있다.
5. 豐富한 助記性.
6. 無限한 展開에 墓當할 수 있다.
7. 一國에 關한 主題를 一個所에 끌을 수 있다.
8. 記號가 單純하다.
9. 助記性을 가졌다.
10. 分類의 選擇 利用이 融通自在이다.

11. 小範圍에서 符號가 記憶의으로 使用되고 있다.

12. 大體로 記憶하든지 하는데 符號가 容易하다.

短點

1. 符號가 混雜하여 記憶及 記載에 困難한 部分이 있다.
2. 圖書를 書架에 配列하는데 時間이 걸린다.
3. 各部分이 同等의 程度로 分類되어 있지 않다. 即 하나의 類는 第5表에 다른 類는 第6表에 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다.
4. 完全한 索引가 없다.

以上

新刊圖書都賣

株式會社 三信書籍

서울特別市鍾路二街八〇

振替 서울 353 電話 ③ 4569

各級學校圖書部

各圖書館

納品特別奉仕

어떠한 書籍이라도 下命하시는대로
完全具備 納品에 特別奉仕합니다.